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

점심시간에 다른 행사 때문에 나오는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고 행사 준비하는 이 자리에 비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자문위원 모시는데 행사를 멋지게 하기는 어렵겠구나 생각 들어 걱정 무척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날이 아주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오늘 이 날씨가 보여주듯이 국사에 좀 어려운 일이나 걱정스런 일도 우리가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노력해 가면 이렇게 활짝 맑게 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도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불안감을 버리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머물다 돌아가셔서 일상생활 하시고, 나라 걱정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안전 바란다면 북은 무장 아닌 주변국과의 신뢰 통한 평화질서 구축해야

이번 핵실험은 이전부터 쭉 계속되던 북핵문제의 연장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말하는 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입니다. 북한이 알면서도 안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인지 실제로 진짜 위협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과

장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도 그렇습니다. 안보를 지키는 일,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외부의 무력적 공격을 막아낼 만한 우리 스스로의 군사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보가 확보되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안보 역량, 군사적 역량 위에 평화 질서가 필요합니다. 평화 질서와 평화 분위기가 깨지면 아무리 강력한 무장력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무장력 위에 평화의 질서가 확보되면 안보 위협이 훨씬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가공할 만한 무장력 갖고 있더라도, 전 세계가 평화 질서를 잘 관리함으로써 무장력이 갖는 안보 위협을 줄여나가며 관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안전을 바란다면 무장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변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하여 평화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나친 무장력은 국가 간의 평화 질서를 해치고, 주변국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북한과 북한 정권이 이 같은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북한이 무장력만으로는 안보가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적이고 신뢰 있는 행동을 통해 안보를 기해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대응, 대화에 의한 해결, 두 가지 길 모두 유효

북한에 대한 충고 못지않게 우리 일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의 핵무장이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됐거나 증명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그리고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해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위협이 존재하고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두 가지의 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좀 강경한 대응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강경한 수단으로, 어느 쪽에서는 대화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요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 되어야 합니다.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의 방법을 추구할 땐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야할 때는 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적절히 배합돼야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력행사라는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여러분들은 평화와 통일 이 두 개를 함께 실현 해 나가자고 해석할 수도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마당에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다른 잣대로는 같은 성공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큰 성공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성공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로 가야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가는 국제사회와 상의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핵실험에도 차분한 국민 분위기 - 남북 간 화해, 교류협력의 진전 있기 때문

해외 나가 보면 우리 한국 동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가끔 어디 가 보면 조그마한 곳에서 몇 분 살지 않는데도 우리 동포회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화를 하거나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역량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현지의 동포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포 사회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잘 단합돼 있을 때 우리 한국사회도 잘 단합될 것이고, 국내가 잘 단합될 때 남북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핵실험 사태까지 왔지만 그간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 사태가 일어났다면 지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방독면 사고, 쌀과 생필품 사재기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안보불감증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런 사재기 없이 평온하게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우수하고 성숙한 국민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이 사재기를 해대면 국내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어 자신 있게 대외관계를 관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의견 충돌 있어서 조율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의 상황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남북 간의 화해, 교류협력이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 진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분들이 해외 동포들입니다.

동포사회가 큰 힘이 되었다

남북관계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있을 때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외에서 남과 북을 교류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큰 역할 했습니다. 친척 방문, 모국 방문 통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안도하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고 분위기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용기를 얻고 돌아옵니다. 솔직히 국내에서 저의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개인적 인기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칭찬을 못 받으면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때때로 힘이 빠지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해외만 갔다 오면 몸은 피곤해서 몸살도 하지만 크게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외국 어디를 가나 우리 상품을 통해 국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나라 지도자들이 한국과 대화나 교류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국력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는 곳마다 우리 동포들이 우리가 자랑스런 민족임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증거로써 언제든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들 대체로 다 성공하시고 성공해서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모범적 시민으로 존경받으며 열심히 살더라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안 가

있는 곳이 없고,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두고 계셔서 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지금 한국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도 잘 가고 있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디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제도와 인습도 빠르게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교육열이나 우방의 도움 등 여러 설명이 완전하지 않고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해외 다니면서 들어보니 부족했던 2%의 설명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이고 능력입니다. 국내에선 몰랐는데 해외 나가 동포들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취업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여러분들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양주에서 오셨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각국에 가서 지난 날 지나온 여러 역사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기쁘다 말만 하기 어려운 가슴 아픈 얘기들이 있고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출입국에서나 현실적으로 사시는 나라들과의 외교관계 또는 국내의 외국인 관리 때문에 법적으로 외국인 대우 받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차별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국내에서는 여러 번 지시하며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시할 때는 예, 하더니 외교적으로 안 풀린다 하고, 다음에 물어보면 외교적으로 일이 안 풀려서 또 못 풀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방침이 결정되었는데도 답답하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방문 취업제입니다. 방문 취업제를 통해 해외 동포들이 자유롭게 모국을 오고가며 모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게 다 해결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국회에 올라가 있고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라도 동포들이 쉽게 오고가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을 완결 못 지어 답답합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서 재촉을 하겠습니다.